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공주프레스협회 간담회

✎ 오희숙 기자 | Ⓞ 승인 2026.03.30 19:30

“농지은행 확대·농업기반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박수진 지사장이 30일 공주시프레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지사장 박수진)는 30일 공주 소재 식당에서 공주시프레스협회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2026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농지은행 확대와 농업기반시설 관리 등 공사의 핵심 사업 방향이 공유됐다.

공주시사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농 육성과 고령농 소득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지 매매 및 장기임대차를 통해 영농 규모화를 유도하고, 경영위기 농가에 대한 재임대 지원과 농지연금, 은퇴이양 직불사업 등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농지은행 사업 예산은 지난해 102억 원에서 올해 18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전체 사업 예산도 65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농업 생산기반 및 농어촌 공간개발 분야 투자도 이어진다. 친환경 용수관리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농어촌 공간개발은 2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주시사는 현재 2개 부서와 2개 지소 체제로 운영되며, 관리면적은 2천906ha, 수리시설은 14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94.6% 수준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박수진 지사장은 “농지은행을 통한 세대교체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용수 관리, 시설 개선, 청년농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오희숙 기자 oheesuk2@hanmail.net